

11-19 (통권 제 489호)

2011. 5. 31.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와 과제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장후석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8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38)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와 과제

Executive Summary i

1. 해외자원개발의 의미와 중요성 1

2.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현황과 평가 3

3. 시사점 13

■ HRI 경제 지표 17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와 과제 >

해외자원개발의 의미와 중요성

해외자원개발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혹은 합작으로 해외의 광물 및 농림수산자원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	- 증대되는 자원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과 자원 주권의 확립 · 자원 가격의 장기적 추세 속에 한국은 자원 빈국이자 소비 대국으로 단기간에 자원 소비를 줄일 수 없는 경제 구조를 안고 있는 상황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현황과 평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해외자원투자는 사실상 광물자원투자(2010년 기준 98.5%)로 이 가운데 석유·가스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 · 농림수산자원 역시 비중은 미미하나 농림자원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 - (특징) 투자대상지역의 탈(脫)아시아 및 해외 기업 인수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자원의 투자 대상 지역이 아시아에서 북미·유럽으로 이동 중 · 해외 자원 기업의 지분 인수가 자원 확보의 주요 전략으로 부상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자주개발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지만 한국 해외자원투자의 핵심인 원유·가스의 2010년 자주개발률(10.8%)은 여전히 2008년 일본(21.9%)의 절반 수준 - 투자 지역의 다각화 노력에도 일부 국가 투자 편중도는 더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국가 수는 2005~07년 58개국에서 2008~10년 90개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일부 국가에 대한 투자 집중도(HHI)는 오히려 심화 - 해외 자원 기업 인수 경쟁 심화에 따른 인수가격 상승 위험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역대 최대 규모 인수 비교: 공개 인수가(다나 페트롤리엄 인수가 대비 자산 배율 1.23)가 비공개 인수(하베스트 에너지 0.41)의 3배 · 국제 자원 확보 경쟁에 따른 인수 가능한 한정된 기업(非국영기업)을 사이에 둔 인수 경쟁 심화와 인수가격 상승의 위험 역시 상존 - 국물 등 해외농산자원투자의 미흡에 따른 수입-투자 간의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자원은 순수입 규모가 크고 국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입 가격에 대한 영향 역시 크게 받지만 광물자원에 비해 해외투자는 미흡 · 또한 농산자원의 경우 해외투자액의 증가 및 비중 변화의 방향과 수입 증가 추세 및 수입 비중 변화의 방향이 불일치

시 사 점

첫째, 공공 부문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모델을 미래 잠재 가치 창출을 지향하도록 정립 둘째, 자원 확보 과정에서 국가 간 경쟁 심화 예상 시에는 조용한 확보 전술이 유용 셋째, 해외농산자원에 민간 투자 전략 수립과 자주개발률 등 자원 안보 지표의 도입 넷째, 지역별 모니터링 강화, 투자 지역 및 자원 다각화 등으로 자원민족주의 변화에 대비 다섯째, 국제 자원 시장 참여를 통한 가격 및 공급의 단기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의 확보

■ **해외자원개발의 의미와 중요성**

해외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의 각종 자원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 및 각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자원 소비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 따라 단기간 내에 소비량을 줄일 수 없는 동시에 국내 자원 생산은 부족하여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원 주권을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 자원 가격의 장기 상승 추세와 가격 변동성 확대는 자원 안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투자데이터를 중심으로 자원투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를 알아보았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현황과 평가**

(현황) 먼저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해외자원투자 규모는 에너지를 비롯한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자원투자는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해왔으며, 전체 대외투자 대비 자원투자의 비중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자원투자의 대부분은 광물자원(2010년 기준 98.5%)이며 그 중에서도 원유 및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밖에 지식경제부의 해외자원투자 통계에 따르면 공기업 투자의 비중(2010년 기준 석유·가스 투자 89.9%, 기타 광물 투자 84.0%)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탈(脫)아시아 등 투자 대상 지역의 다각화와 현지 기업 지분 인수 방식의 투자 증가가 확인하다. 2000년대 들어 광물자원의 對 아시아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북미 및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림수산자원의 경우 기존의 오세아니아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감소하는 동안 아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증가하여 광물자원투자는 탈(脫)아시아, 농림수산자원투자는 아시아 집중이라는 상반된 특징을 보인다. 한편 또 다른 특징으로 현지 기업 인수 방식의 투자 비중 증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이 같은 변화는 미주와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에서 확인하다. 이는 해외 자원 기업의 인수가 최근 한국 해외자원 확보의 주요 전략이며, 주요 타깃은 북미 및 유럽의 자원 기업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평가)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성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한계 역시 나타나는데, **첫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핵심인 석유 및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여전히 낮다.** 자원 안보의 주요 지표라 할 수 있는 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해외 자원 확보량의 절대 규모 역시 급증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가스의 2010년

자주개발률은 한국과 자원 사정이 유사하여 자원 확보의 주요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2008년 자주개발률의 절반 수준(한국 10.8%, 일본 21.6%)에 그치고 있다.

둘째, 지역적 다각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 대한 투자 쏠림은 심화되었다 광물자원투자의 탈(脫)아시아, 투자 대상국 수의 증가(2002~04년 49개국→2005~07년 58개국→2008~10년 90개국) 등과 같이 해외자원투자는 표면적으로는 지역적 다각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 투자액을 통한 HHI를 산출한 결과, 2000년대 중반보다 오히려 후반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며(광물자원 기준 2005~07년 734.3→2008~10년 1,157.0) 일부 국가에 대한 투자 집중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자원 기업 인수 경쟁의 심화에 따른 인수가격 상승의 위험이 우려된다 한국의 자원 확보에 있어 가장 큰 성과는 2009년 하베스트 에너지, 2010년 다나 페트롤리엄 인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자원 기업의 인수는 세계 자원 매장량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국유 기업은 사실상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정된 자원을 둔 각국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인수가격 상승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사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농산자원의 안보 문제가 부상하고 있음에도 해외투자 규모는 미흡하다 한국은 농림수산자원의 순수입이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동시에 국제 시장의 가격 변화에 곡물 수입 가격이 받는 영향은 원유·가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산자원의 안보 문제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농산자원의 해외 투자는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원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미흡함은 물론, 농산자원의 수입 증가와 투자 증가 사이에 불균형을 보이는 등 자원 안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시사점

한국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 부문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모델의 방향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잠재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자원 기업 인수 혹은 자원 외교 과정에서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경우 조용한 확보 전술이 유용할 수 있다. **셋째**,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농산자원의 민관 투자 전략 수립과 자주개발률 등의 자원 안보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자원 보유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투자 지역의 다각화, 비전통자원투자 등으로 자원민족주의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제 자원 시장 참여를 통한 자원 확보로 가격 및 수급의 단기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의 의미와 중요성

○ 해외자원개발의 의미

- (정의) 해외자원개발이란 대한한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¹⁾
 - 해외자원개발은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혹은 합작으로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 및 개발 관련 사업까지 포함
 - 이밖에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 대한 용자 및 투자나 기술 용역 등의 제공을 통해 자원을 수입하는 간접적인 참여 역시 해외자원개발에 해당됨
- (범위) 일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서 자원의 범위에는 광물 및 농림수산자원의 조사 및 탐사, 개발 및 생산 관련 산업이 포함됨
 - 자원의 범주에는 원유·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광물과 금속 및 비금속 광물, 곡물, 낙농, 목재 등을 포함한 농림자원, 어패류 등을 포함한 수산자원이 포함됨
 - 자원 확보의 범위는 산업적으로 자원의 조사 및 탐사, 개발 및 생산의 상류부분에서 제조, 수송, 판매의 하류부분까지 넓게 보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원 확보라 함은 제조품을 제외한²⁾ 1차 산업 상품, 특히 상류 부분의 확보로 보는 경우가 많음

○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

- 한국은 자원 소비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등 단기간 내에 자원 소비를 줄일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자원의 자주개발³⁾이 더욱 중요함
 - 생산 과정에서 석유 소비가 가장 많은 산업인 제조업은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⁴⁾

1) 법률 제10595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시행 2011. 4. 14).

2) 석유 제품, 철강 등도 자원이라 할 수 있으나 자원 관련 산업의 상류 부분으로 한정할 경우 제조품이 제외됨.

3) 한국이 해외에서 개발 및 확보한 자원을 뜻하는 광의 개념과 해외에서 개발하여 도입한 자원을 뜻하는 협의 개념이 있음. 산업자원부(2007).

4) 2010년 기준 제조업의 GDP당 석유 소비는 1억 원당 13.4만 배럴로 서비스업(5.2만 배럴), 건설업(2.5만 배럴)보다 월

- 또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 시에도 한국은 선진국이나 거대 개발도상국보다 인구 대비 석유 소비량, GDP 대비 철광석 소비량 등이 많은 자원소비 대국임⁵⁾
- 하지만 한국은 자원 수요의 규모에 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원의 양은 부족하여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 한국은 원유는 수요의 전체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원유·천연가스 및 석탄을 제외한 광물 중 금속광의 자급률은 1.4%, 비금속광의 자급률은 68.2%임⁶⁾
 - 이는 광물자원을 제외한 다른 자원 역시 마찬가지로 곡물의 자급률은 26.7%, 원목의 자급률은 38.8%에 불과함⁷⁾
- 이에 더해 자원의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국제 가격은 최근 상승폭이 더욱 커졌으며, 2000년대 들어 가격 변동성 역시 확대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CRB 지수는 1980년 최고점을 기록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하락한 후 상승추세에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급등락의 모습을 보임⁸⁾
 - 또한 2000년대 들어 광물, 식용 1차 상품, 농산물 등의 가격 변동성이 증대⁹⁾ 되면서 가격 상승 외에 가격 변화에 따른 리스크 역시 확대되고 있음
- 결국 해외자원개발은 한국의 자원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은 물론 자원 사업의 기회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자원 빈국인 한국으로서는 해외자원개발 및 확보 사업이 경제 기반 확보와 자원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 이밖에 확보한 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의 의미로서 정부 및 기업에게 사업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음

등히 많으며(석유정보망,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전체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GDP)은 2001, 02년 25~26%대에서 2010년에는 30.6%까지 상승하였음.

5)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한국의 해외 자원 확보의 한계와 위협」(2010. 10. 26) 참조.

6) 2010년 기준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경제연구실(2011)

7) 곡물은 2010년, 원목은 2009년 기준임. 농림수산물부(2011), 산림청(2010)

8) RJ/CRB Index, 1980년 11월 340에 근접한 이후 2001년 4분기 190미만까지 하락 추세를 보임. 이후 급등하여 2008년 7월 470대까지 상승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선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350 내외까지 상승함. Reuters.

9) UNCTAD 상품 가격(UNCTAD Commodity Price) 기준 변동성은 광물이 1995년 이후 2005년까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농산 1차 상품은 2000년 이후 증대, IMF 1차 상품 가격(IMF, Primary Commodity Prices) 기준 변동성은 광물이 1995년 이후 계속 증대, 식품 및 농산 1차 상품이 2000년 이후 증대됨. David S. Jacks, Kevin H. O'Rourke, Jeffrey G. Williamson(2009)

○ 연구목적

-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자원 수입 및 가격 변화 등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물 및 농림수산자원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봄
 - 이를 한국의 자원별 수입액과 수입가격, 국제가격 변화와의 비교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과 평가

(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

○ 자원별 투자 현황

- 수출입은행 데이터 기준 한국의 대외직접투자에서 자원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09년 50억 달러를 넘어 2010년은 73.4억 달러에 달했음¹⁰⁾
 - 해외자원투자는 규모의 측면에서도 급증을 보이는 가운데 전체 대외직접투자액 대비 자원 분야의 비중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¹¹⁾
 - 또한 한국 전체 경제 규모의 성장 속도와 비교해도 해외자원투자의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남¹²⁾
- 이 같은 해외자원투자 규모의 증가는 석유·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 등 광물자원¹³⁾ 관련 투자의 급증을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해외자원 투자액 변화는 사실상 광물자원 투자에 좌우되며, 이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이에 따른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비롯됨¹⁴⁾

10) 자원 관련 제조 및 유통 산업 등에 대한 투자는 제외함.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 정제·제강·제련 등을 포함하여 발표한 투자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

11) 2006~10년 해외자원투자액은 연평균 49.4% 증가하였으며, 전체 대외직접투자 대비 자원 분야의 비중은 2000년 2.6%, 2005년 7.0%에서 2010년에는 31.5%까지 증가하였음. 또한 세계 경제 침체의 여파로 2009년 한국의 전체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6.0% 감소하였으나 자원 분야의 투자는 광물자원투자의 증가(전년대비 32.4% 증가)에 따라 3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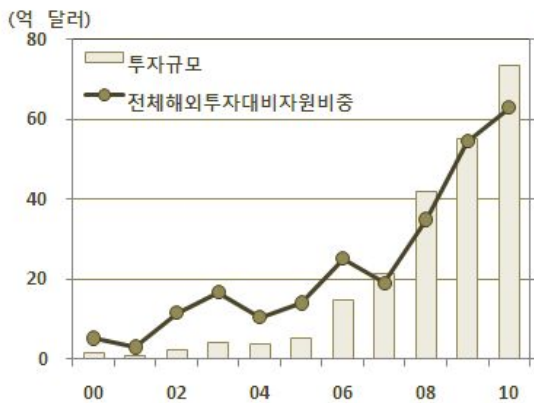
12) 2000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해외자원투자액의 비중은 2000년 0.03%, 2005년 0.06%, 2010년 0.72%임.

13) 전체 해외자원 투자액 대비 광물자원의 비중은 2008년 98.1%, 2009년 98.8%, 2010년 98.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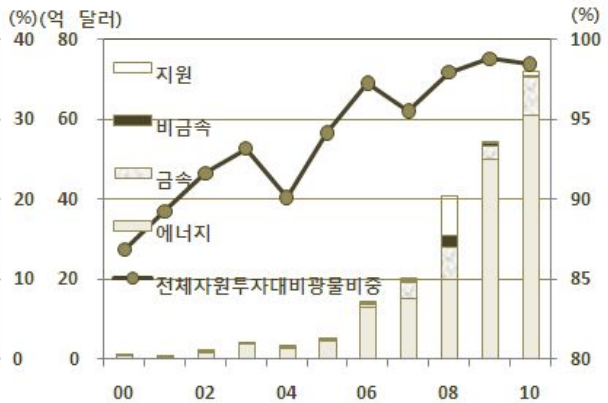
14) 광물자원 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1~05년은 62.7%, 2006~10년은 49.9%이며, 같은 기간 전체 자원 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60.6%와 49.4%로 광물자원 투자가 전체 자원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음.

- 특히 광물자원 가운데 국내 생산이 없는 석유·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의 투자가 한국 해외자원투자의 중심이라 할 수 있음¹⁵⁾
- 또한 상대적으로 비중은 작지만 철¹⁶⁾을 비롯한 금속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액¹⁷⁾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자원투자 추이 >



< 해외광물자원투자 추이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해외자원투자에는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채굴 및 채취, 광업 지원 서비스업, 동식물의 사육과 재배, 농림 관련 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업, 원양 및 연근해, 내수면 어업, 양식업, 소금 채취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등을 포함.

- 한국의 해외광물자원투자는 공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석유·가스의 경우 2010년 기준 90%에 육박하였음
- 2010년 기준 전체 해외광물투자 가운데 75.1%는 공기업의 투자로 이루어졌으며 2011년 역시 공기업의 투자 비중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됨¹⁸⁾
- 이는 특히 석유·가스 자원의 경우 더욱 두드러져 2010년 투자의 공기업 비중은 89.9%이며, 2011년 전망치 역시 84.0%로 크게 다르지 않음¹⁹⁾

15) 2000~10년 전체 광물자원 투자액 대비 에너지자원의 비중은 2008년만 48.8%였을 뿐, 나머지 연도는 74.8%(2007년)~98.9%(2003년)에 달했으며(2010년은 84.5%), 에너지자원투자 중에서도 석유·가스의 비중은 2008년의 69.6% 외에 나머지 연도는 82.4%(2001년)~98.0%(2003년)에 달함(2010년은 84.8%).

16) 2010년 철 관련 광업에 대한 투자액은 7.0억 달러였으며, 이는 과거의 최대 투자 규모였던 2004년 3.7억 달러, 2008년 5.2억 달러를 크게 초과한 수치임.

17) 해외금속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액은 2008년 8.0억 달러(전년대비 100.9% 증가)에서 2009년 3.2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0년 9.7억 달러로 다시 증가하며 역사상 최대의 투자액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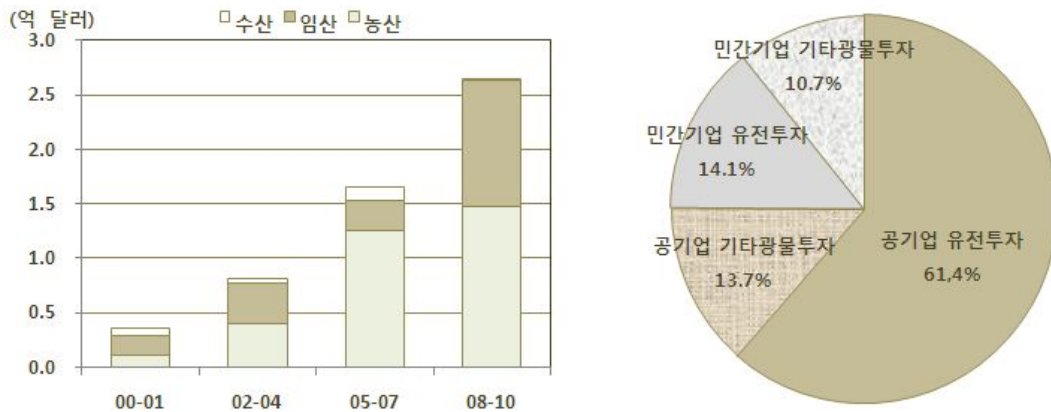
18) 2011년 해외광물투자의 공기업 비중은 61.9%로 전망됨. 지식경제부(2011)

19) 다만 2011년의 석유·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광물에 대한 해외 투자에서 공기업의 비중은 37.1%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2010년의 공기업 비중은 56.0%)

- 한편 농림수산자원에 대한 투자 비중은 광물자원에 비해 매우 작지만²⁰⁾, 농림자원에 대한 투자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농림자원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00년대 후반부터 빠른 증가 추세²¹⁾를 보이며 2010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상회한 반면 수산자원투자 규모는 미미함²²⁾
- 해외농림자원투자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는데²³⁾, 최근에는 재배 지원 서비스, 임업 관련 서비스 등 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함²⁴⁾

< 농림수산자원투자 추이 > < 2010년 공공·민간기업 광물투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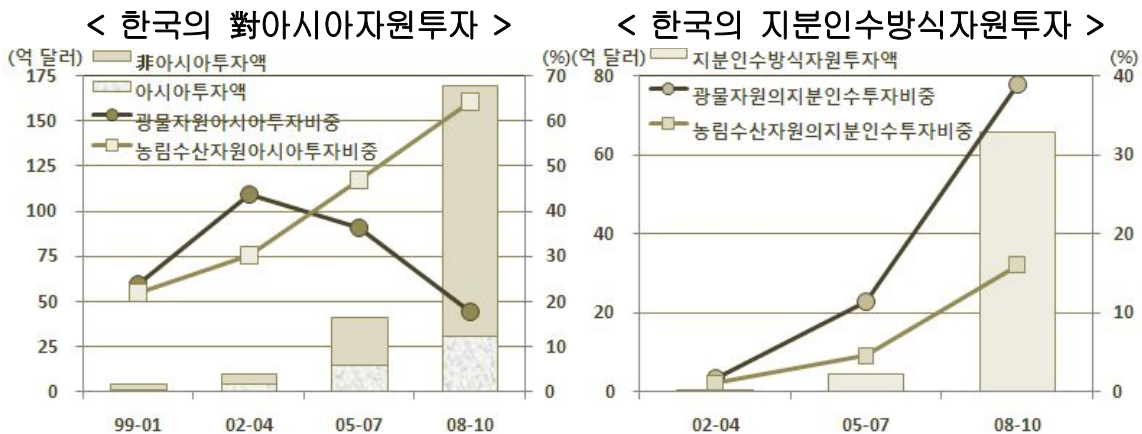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지식경제부.
 주: 공공 및 민간기업 광물 투자에는 제련·제강 등 제조업 투자 포함.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징

-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자원투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동을 포함한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급감하고 있음
- 2008~10년 전체 해외자원투자 가운데 아시아의 비중은 18.4%로 2002~04년 42.7%, 2005~07년의 36.7%와 비교하여 절반으로 감소하였음
- 특히 아시아 지역 가운데 중동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투자액의 절대 규모 역시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음²⁵⁾

20) 2010년 전체 해외자원 투자액 대비 농림자원의 비중은 1.5%, 수산자원의 비중은 0.01%임.
 21) 2006~10년 해외농림자원 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31.9%임.
 22) 해외수산자원에 대한 투자액은 2007년 840만 달러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0년의 투자액은 40만 달러임.
 23) 2003~09년 전체 해외농림자원 투자액 대비 농산물자원의 비중은 50% 이상임.
 24) 연구개발업 및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해외농림자원 투자액 대비 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6년 4.1%, 2007년 5.0%, 2008년 7.8%, 2009년 33.7%, 2010년 66.0%로 증가 추세를 보임.
 25) 전체 해외자원투자 중 중동 비중은 2005년 22.0%에서 2010년 1.8%로 감소하였으며 투자액은 2006년의 2.6억 달러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9년은 0.9억 달러, 2010년은 1.3억 달러를 기록함.

- 하지만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원투자의 절대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전체 대외직접투자 대비 자원의 비중도 증가하였음²⁶⁾
 - 반면 북미 및 유럽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 비중의 변화와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자원투자의 탈(脫)아시아는 지역적 다각화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는 광물자원에 국한된 변화로 농림자원투자는 반대로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음
- 해외광물투자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2002~04년 43.8%, 2005~2007년 36.2%, 2008~10년 17.6%로 감소 추세인 반면 북미, 유럽의 비중은 커지고 있음²⁷⁾
 - 반면 해외농림자원에 대한 투자는 오세아니아의 비중이 감소²⁸⁾하는 동안 아시아의 비중은 2002~04년 28.5%, 2005~2007년 47.7%, 2008~10년 64.2%로 증가함
 - 따라서 자원투자 대상 지역의 탈(脫)아시아와 지역적 다각화는 광물자원투자의 특징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한국의 해외자원투자에 있어 또 다른 특징으로는 신규 법인 설립보다는 현지의 기업 인수를 통한 투자 방식의 비중 증가가 있음
- 이 역시 투자의 지역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자원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물자원투자 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았음²⁹⁾

26) 對아시아(중동 제외) 자원투자는 2004년(1.7억 달러) 이후 매년 증가(2006년~10년 연평균 증가율 43.1%)하여 2010년은 11.9억 달러였으며, 전체 대외직접투자 대비 자원 비중 역시 2000년 2.6%, 2005년 7.0%, 2010년 31.5%로 급증함.
 27) 2002~04, 2005~07, 2008~10년의 전체 해외광물자원투자의 지역별 투자 비중 변화는 북미 10.7%→19.0%→34.0%, 유럽 0.3%→9.0%→25.8%.
 28) 2002~04년, 2005~07년, 2008~10년의 전체 해외농림자원투자에서 오세아니아의 비중은 55.3%→21.9%→2.3%임.
 29) 2002~04년, 2005~07년, 2008~10년의 전체 해외자원투자 대비 현지의 기존 지분 인수 방식의 투자 비중은 1.6%→11.0%→38.6%, 광물자원투자에서의 기존 지분 인수 방식 투자 비중은 1.7%→11.3%→39.0%로 거의 같은 수치임.

- 하지만 농림 및 수산자원투자 역시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몇 년간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와 함께 해외 자원 기업 인수가 자원 확보의 주요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함
 - 최근 몇 년 동안 현지 기업의 지분 인수를 통한 자원투자를 지역별로 보면 유럽과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이루어고 있음³⁰⁾
 - 한편 각 지역별 투자 중 지분 인수 방식 투자의 비중을 보면 유럽, 아프리카, 미주 지역에서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확연한 비중 증가가 나타남³¹⁾

(2)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평가

○ 여전히 낮은 자주개발률

- 한국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
 - 적극적인 해외자원투자의 결과로 원유 및 천연가스의 자주개발률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³²⁾
 - 또한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 역시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으며 리튬, 희토류를 포함한 신(新)전략광물의 2010년 자주개발률은 목표치를 초과함³³⁾
- 이밖에 각 자원의 확보량 규모 역시 증가하면서 향후의 자원 안보 문제에 대응하여 해외 비축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원유 및 천연가스의 해외 확보 가채매장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³⁴⁾
 - 6대 전략광물은 2009년 철광석의 해외 확보 가채매장량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우라늄의 해외자원 확보 등의 성과를 보임³⁵⁾

30) 2008~10년 기준 지분 인수 방식 해외투자의 지역별 비중은 유럽 53.8%, 중남미 18.6%, 북미 8.3% 순임.

31) 2006~10년, 2008~10년 각 지역별 전체 광물자원 투자액 대비 기업 지분 인수 방식 투자액은 유럽 41.3%→81.4%, 아프리카 36.2%→80.7%, 북미 0.3%→9.5%, 중남미 8.3%→65.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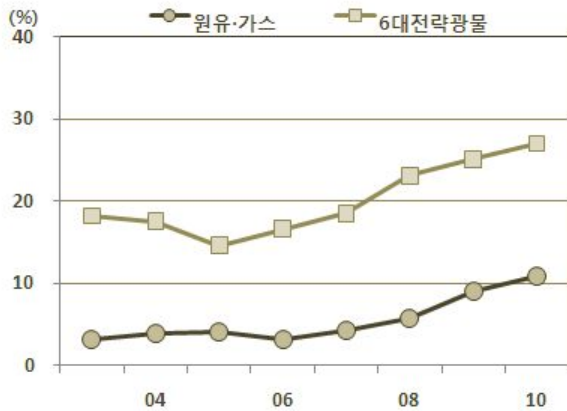
32) 원유 및 천연가스의 자주개발률은 2006년 3.2%, 2008년 5.7%, 2010년 10.8%임. 지식경제부(2011)

33) 신(新)전략광물의 2010년 자주개발률 8.5%임(목표 5.5%). 지식경제부(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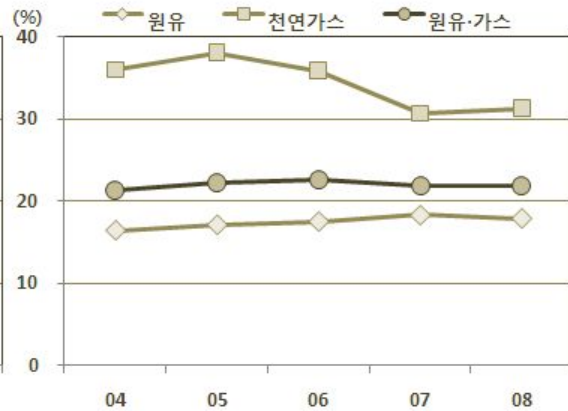
34) 2005~10년 원유 및 천연가스의 가채매장량은 연평균 17.5% 증가, 일일 평균 생산량은 23.9% 증가함(2010년은 잠정 데이터 기준). 지식경제부(2011)

- 하지만 그동안 한국 해외자원개발의 핵심이었던 에너지 부분의 자주개발률은 자원 확보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한국 해외자원개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2010년 자주개발률은 2008년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해외자원 확보 외에도 해양자원개발을 통하여 수량은 많지 않으나 원유 및 천연가스를 국내에서 생산하면서 자급률 향상에 노력 중임
- 이와 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자원 사정이 유사한 한국에게 자원개발 및 확보를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한국의 주요 광물 자주개발률 >



< 일본의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



자료: 지식경제부, 日本石油鋳業連盟.

○ 해외자원투자 지역 다각화의 한계

-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은 투자 대상국가 수의 증가 등 표면적으로 지역적 다각화가 진행 중에 있음
- 해외자원개발 투자 대상 지역의 탈(脫)아시아 등으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자원투자의 대상국 수는 90개국에 달했음
- 또한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보아도 1999년에서 2001년의 43개국, 2002년에서 2004년의 49개국, 2005년에서 2007년의 58개국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35) 철광석의 가체매장량은 2008년 8,130만톤에서 2009년 13억 5,020만톤, 2010년 15억 7,000만톤(잠정)으로 증가,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가체매장량이 없었으나 2009년 20,878톤U로 증가함. 지식경제부, 해외자원개발협회(2011)

-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을 통한 투자 집중도를 산출해 보면 일부 국가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광물자원투자액의 HHI를 산출한 결과 2008년에서 2010년 기준 1,157.0으로 2005년과 2007년의 734.3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자 쏠림이 확인한 농림수산자원은 같은 기간 수치가 더욱 커져³⁶⁾ 향후 해당 지역의 돌발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 해외 자원 기업 인수 가격의 상승

- 한편 해외 자원 기업 지분의 적극적 인수로 자원 확보는 물론 탐사, 채굴 등 관련 인력 및 기술 확보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하베스트 에너지 및 2010년 다나 패트롤리엄의 인수는 그 규모를 볼 때 한국의 석유·가스 기업 인수 경쟁 본격 참여를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음
 - 특히 2011년 3월에는 아나다코社와의 세일오일 생산 광구 지분 참여 계약으로 최초로 비전통 생산 유전³⁷⁾을 확보하며 미래형 에너지자원 확보에 진출함
 - 이밖에 2011년 4월 캐나다 광물 기업 파워스트 인수는 광물자원공사 최초의 해외 자원 기업 인수 사례임
- 이처럼 자원확보 방식의 다각화로 해외 기업 지분 인수가 부상하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 기업에 대한 인수 경쟁의 심화는 불가피한 상황임
 - 2002년 이후 광물자원 관련 10대 M&A 규모를 살펴보면 석유·가스는 물론 나머지 광물자원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³⁸⁾
 - 이와 같은 자원 관련 M&A 가격의 상승은 자산 대비 투자액 비율의 증가로 이어져 자원확보 사업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³⁹⁾
 - 특히 석유·가스 분야의 경우 매장량의 대부분을 사실상 인수가 불가능한 NOC가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⁴⁰⁾

36) 2002~04년, 2005~07년, 2008~2010년 농림자원투자의 HHI는 2,043.5→1,290.3→2,038.5이며, 수산자원투자는 1,684.7→1,012.0→2,932.6임.

37) 기존의 원유 및 가스 외에 오일샌드 세일오일·가스, 초중질유, 치밀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을 총칭. 지식경제부
38) 2002~04, 2005~07, 2008~2010년 10대 M&A 인수액의 합계는 석유·가스 123.3→248.1→362.7억 달러, 기타광물 96.8→322.1→363.4억 달러임.(모기업의 기존 해외자회사 인수, 귀금속 광물자원 인수는 제외)

39) 실제로 자원 관련 M&A가 과열된 2009년에는 시가총액 대비 인수액 비율이 석유·가스는 전년대비 63.2% 상승하고 일반 광물이 63.2% 상승하는 등 2000년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 중국 등 초대형 M&A의 경쟁이 다소 주춤한 2010년 감소함.(피인수 기업이 상장 기업인 국가 간 전체 M&A, Bloomberg M&A 데이터 기준)

40) NOC(National Oil Company, 산유국 국영 석유 기업). 日本經濟産業省(2010)

- 특히 해외 자원 기업 인수에서 중국 등과의 경쟁 심화로 인수 가격 상승의 우려가 상존하여 경쟁을 피한 비공개 인수 진행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외광물자원에 대한 M&A를 통한 적극적인 자원확보가 이슈가 되어왔으며⁴¹⁾, 한국과의 경쟁 끝에 인수한 아닥스는 광물 분야의 국제 M&A 가운데 최고액임
- 한편 한국의 인수 사례 중 비공개로 진행한 하베스트 에너지의 자산 대비 인수액 비율은 0.41이며, 공개로 적대적 인수한 다나 페트롤리엄은 1.23임

< 2005년 이후 광물자원의 10대 국제 M&A >

(석유가스)

(금속광물)

(단위: 억 달러)

연도	인수기업	인수국가	금액	연도	인수기업	인수국가	금액
2009	Addax	중국	88.3	2008	Rio Tinto	중국, 미국	141.4
2008	Duvernay	영국, 네덜란드	57.7	2007	Novelis	인도	57.1
2010	Carabobo-1 Project	스페인, 미국, 일본	48.5	2007	LionOre Mining	러시아	53.6
2007	PrimeWest	UAE	44.8	2007	Jubilee Mines	스위스	24.9
2009	Harvest	한국	39.6	2009	ASARCO	멕시코	24.8
2005	PetroKazakhstan	중국	39.2	2007	복수 광물자원	러시아	22.0
2007	Burren Energy	이탈리아	34.6	2009	Teck Resources	중국	15.0
2010	Arrow Energy	중국, 영국, 네덜란드,	33.2	2008	Oriel Resources	러시아	13.9
2010	Dana Petroleum	한국	27.9	2007	Cumerio	독일	12.2
2008	Imperial Energy	인도	26.1	2007	Nikanor	콩고	10.4

자료: Bloomberg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주: 1) 연도는 Announced, 인수 금액은 Bloomberg M&A 데이터 기준
 2) 모기업의 기존 해외자회사 인수 및 귀금속 광물자원 인수는 제외.

○ 농산자원의 수입과 투자 간 불균형

- 최근 농산자원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투자 규모 역시 확대되면서 곡물 등 해외 농산 자원 확보량 증가의 성과를 보임

41) 2002~04년과 2005~07년의 각 기간 동안 일반광물 10대 국제 M&A에 관련된 중국 기업은 없었으나 2008~10년에는 최대 투자 규모인 리오틴토의 지분 인수를 비롯해 2건의 M&A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였음. 석유가스의 10대 M&A 역시 중국 기업이 관련된 M&A는 2002~04년 1건(인수액 기준 7위:3.5억 달러), 2005~07년 1건(2위:39.2억 달러), 2008~10년 3건(1위:88.3억 달러, 5위:33.2억 달러, 8위:17.9억 달러)로 투자규모가 증가하였음.

- 2010년 생산량 기준 곡물의 해외 확보량은 87,648톤으로 전년대비 293.6% 증가⁴²⁾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한편 해외 조립 면적 역시 최근에는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⁴³⁾
- 하지만 한국은 농산자원의 순수입 규모가 크고 국제 상품 가격 변화에 따른 수입 가격 변화 역시 크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안보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 한국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농림수산자원의 순수입액 규모는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⁴⁴⁾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
 - 또한 통념과 달리 한국은 단기 파생상품 시장 가격 변화에 따른 수입 가격의 영향에 있어 곡물이 원유 및 천연가스 보다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⁴⁵⁾
 - 특히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한국과 자원 사정이 유사한 일본보다도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⁴⁶⁾
- 농림수산자원의 해외투자 증가와 해외 확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식량 자원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한국 농림수산자원의 해외 투자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 해외 자원투자에서 농림수산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 또한 한국의 투자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는 중국이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2009년 이전까지 증가를 보인 일본의 투자 규모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전체 해외자원투자 규모를 감안하여 농림수산자원투자의 비중을 비교해도 한국은 중국 및 일본보다 높다고 할 수 없음

42) 농림수산식품부(2011)

43) 2009년 해외조립 현황은 27,796ha로 2008년 38523ha보다 감소하였으나 2000년 11,900ha, 2007년 13,303ha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임. 산림청(2010)

44) 순수입=수입-수출, 농림수산자원의 순수입이 한국보다 큰 나라는 일본, 영국, 독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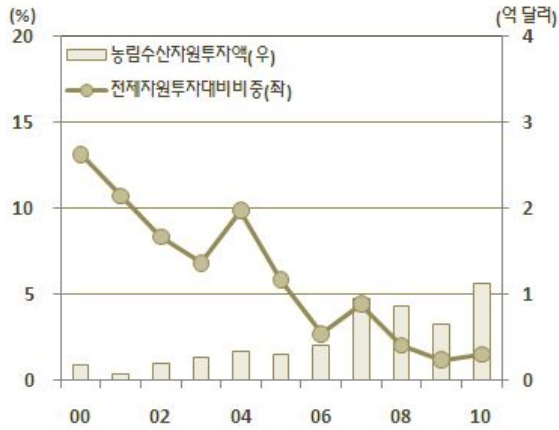
45) 2006~10년 기준 국제가격 변화에 따른 수입가격 영향은 5대 곡물 81.8%, 원유·천연가스 71.4%임. 각 기간별 자원의 6월물 선물가격지수 상승 신호 발생(전분기대비 $\geq|\pm 3\%|$) 후 1~3분기 내에 자원 수입가격지수 영향 발생(전분기대비 $\geq|\pm 3\%|$) 비중을 산출. 각 자원의 지표는 김태훈, 송준호(2009)의 가중평균 수입곡물가격지수 산출 방

$$\text{법론에 따라 분기별 수입가격지수}(GP_t = \frac{\sum_{i=1}^n w_{i,t} \cdot IMP_{i,t}}{\sum_{i=1}^n w_{i,2005} \cdot IMP_{i,2005}}) \times 100, \quad GP: \text{수입가격지수}, \quad w_i: \frac{\text{곡물 } i \text{의 수입액}}{\text{5개 곡물의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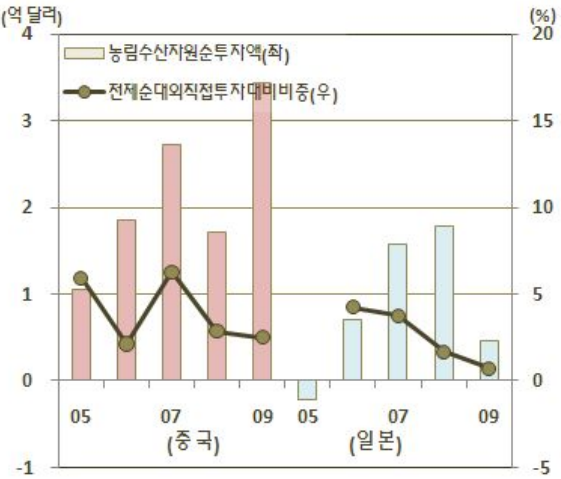
IMP_i: 자원 i의 수입단가, i=옥수수, 밀, 대두박, 대두, 커피(이상 곡물), 원유, 천연가스)와 선물가격지수(IMP_i 대신 FP_i: 곡자원 i의 6월물 선물가를 대입)를 5대 곡물과 원유 및 천연가스를 분리하여 각각 산출함.

46) 한국 58.3%(1995~00년)→77.8%(2001~05년)→81.8%(2006~10년), 일본(66.7%→60.0%→50.0).

< 한국의 해외농림수산자원 투자 >



< 중·일의 농림수산자원 순대외투자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中國國家統計局, 日本財務省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중국과 일본 데이터는 순대외투자액(Outflow-Inflow)으로 양국의 실제 농림수산자원 해외 투자 규모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농림수산자원의 해외투자는 규모의 증가나 각 자원별 비중에 있어 수입의 증가 및 수입 비중 변화의 방향과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곡물 및 채소·과일의 수입액과 육류 및 낙농 제품의 수입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수산자원과 임산자원의 수입액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음⁴⁷⁾
 -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곡물 및 채소·과일과 육류 및 낙농 제품의 수입액 증가는 중위권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한국 농산물 수입 변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⁴⁸⁾
 - 하지만 농산자원은 수입량 증가에 비해 투자액의 증가 폭은 커지지 못하고 있으며, 임산자원은 수입량 감소에 비해 투자액은 큰 폭의 증가를 보임⁴⁹⁾
 - 또한 농림수산자원의 자원별 수입 비중과 투자 비중을 비교해보면 광물자원에 비해 상대적인 불일치를 보이고 있음⁵⁰⁾

47) 2003~05년과 2006~08년 각 기간 자원별 수입액 증가율은 곡물 및 채소·과일은 56.3%, 육류 및 낙농 제품은 51.3% 인 반면, 수산자원은 41.3%, 임산자원은 27.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FAO 데이터 기준)
 48) OECD 국가 중 한국의 2003~05년 대비 2006~08년 수입액 증가율 순위는 곡물 및 채소·과일 14위, 육류 및 낙농 제품 17위, 수산자원 22위, 임산자원 21위임.
 49) 농림수산자원별 수입량과 해외투자액의 2002~04년 대비 2005~07년 증가율, 2005~07년 대비 2008~10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농산자원 4.9%→9.7%:179.0%→18.1%, 임산자원 -5.4%→14.1%:-27.5%→338.6%로 나타남.
 50) 2008~10년 기준 전체 광물자원 대비 각 자원의 수입액 및 해외자원투자액의 비중은 원유 및 천연가스 57.5%:67.7%, 석탄 20.2%:9.3%, 일반 광물 22.2%:22.9%이며, 2008~10년 기준 전체 농림수산자원 대비 각 자원의 수입액 및 해외자원투자액 비중은 농산자원 59.9%:50.3%, 축산자원 15.0%:5.2%, 임산자원 11.4%:43.7%, 수산자원 13.8%:0.7%임.(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 기준)

4. 시사점

첫째, 공공 부문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모델의 방향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잠재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에 대해 민간의 참여가 힘든 부분은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성 확보 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이는 공공의 역할로서 옳은 방향이기는 하나 **민간이 참여하기 힘든 부문은 사업화가 불투명한 사업이라기보다는 투자 이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비전통 자원⁵¹⁾ 등 미래의 사업 가치가 큰 부분으로 정의되어야 함**
- 이와 같은 공공 부문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모델 정립을 통하여 미래의 잠재 가치를 지향함은 물론 국가 예산 등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리스크 조정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둘째, 자원 기업 인수나 자원 외교 과정에서 국가 간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용한 확보 전술이 유용할 수 있다.

- 각국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자원 확보 계획 발표 후 경쟁이 심화되고 인수 금액이 상승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발생함
- 이미 한국은 인수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중국 기업의 참여와 가격 상승으로 인수에 실패한 사례가 있으며, 자원 보유 상대 정부와의 양해 각서 체결 이후 일본 등 경쟁국의 적극적인 반격을 경험한 바 있음
- 따라서 자원 기업 인수나 자원 외교에 있어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용한 확보 전술이 유용할 수도 있음

51) 오일샌드, 셰일 오일 및 가스, 치밀 가스 등.

셋째, 광물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농산자원의 민관 투자 전략 수립과 함께 자주개발률 등과 같은 자원 안보 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

- 농산자원에 대한 투자의 상대적 부진 및 수요와 투자의 불균형 등은 해당 자원 투자에 대한 연구와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임
- 식량 자원 안보 문제의 증대 등 농림수산자원의 중요성 역시 무시할 수 없으며, 관련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민관 투자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이를 통해 해외농산자원의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여 평시에는 생산물을 일부 현지 유통, 일부 수입 등으로 수익 사업화하고 공급 불안정, 가격 급등 등 자원 안보 문제 발생 시 생산물을 한국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함
- 또한 경작지 규모의 한계로 국내 생산만을 통한 자급률 상승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 투자를 통한 확보는 불가피하며, 자주개발률과 같이 자원 안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도입이 요구됨

넷째, 자원 보유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투자 지역의 다각화, 비전통자원투자 등을 통해 자원민족주의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자원 가격의 장기 상승 추세, 최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확산, 곡물을 이용한 자원 무기화의 가능성, 자원 소비국의 新자원민족주의⁵²⁾ 등은 새로운 방향의 자원민족주의를 예고하고 있음
- 이는 기존의 광물자원 보유국들 사이의 자원 민족주의 확산은 물론, 곡물 생산국의 식량 무기화, 중국 등 자원 소비국의 新자원민족주의의 확산까지 포함하고 있음

52)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는 특징적 조건으로는 자원 가격 상승, 자원 소비국 민족주의의 확산, 자원 생산국의 민주화 및 산업화, 개발 및 생산에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원 보유 등이 있음. 石井 彰(2010)

- 따라서 자원 보유국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자원민족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이해하고 자원투자 및 수입의 다변화,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자원 안보 문제에 대응해야함

다섯째, 국제 자원 시장 참여를 통한 자원 확보로 가격 및 수급의 단기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야한다.

- 해외자원개발 및 확보는 자원 안보 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이며, 단기 대응 방안으로는 국제 자원 시장의 참여를 들 수 있음
- 국제 자원 시장의 참여를 통한 자원 확보는 가격 급변이나 돌발적인 수급 불안정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의미함
- 이에 국제 자원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단기적인 자원 수급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시켜야함 **HRI**

김필수 선임연구원 (pskim@hri.co.kr, 02-2072-6238)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8	2009 ^P	2010 ^P					2011		
				1/4	2/4	3/4	4/4	연간	1/4	연간 ^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0.3	8.5	7.5	4.4	4.7	6.2	4.2	4.3	
	민간소비 (%)	1.3	0.0	6.6	3.5	3.6	2.9	4.1	3.0	3.8	
	건설투자 (%)	-2.8	3.4	4.3	-2.3	-3.1	-2.9	-1.4	-11.9	1.5	
	설비투자 (%)	-1.0	-9.8	29.1	30.5	26.6	15.9	25.0	12.0	8.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32	328	3	89	99	92	282	27	197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133	404	29	146	106	130	412	80	304
		수출 (억 \$)	4,220	3,635	1,011	1,202	1,163	1,287	4,664	1,313	5,168
		증감률 (%)	(13.6)	(-13.9)	(35.8)	(33.1)	(22.7)	(23.8)	(28.3)	(29.9)	(10.8)
		수입 (억 \$)	4,353	3,231	982	1,056	1,507	1,157	4,252	1,233	4,864
		증감률 (%)	(22.0)	(-25.8)	(37.4)	(42.8)	(24.6)	(24.6)	(31.6)	(25.6)	(14.4)
소비자물가 상승률 (%)	4.7	2.8	2.7	2.6	2.9	3.6	2.9	4.5	3.0		
실업률 (%)	3.2	3.6	4.7	3.5	3.5	3.3	3.7	4.2	3.5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94	62	76	78	74	82	78	101	88.7		
웬달러 환율(평균, 원)	1,103	1,276	1,143	1,165	1,184	1,132	1,156	1,120	1,09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